

도 협 소 식

제1차 출판분과위원회의록

일시 : 1974년 1월 22일 오후 3시
 장소 : 협회 사무국
 안건 : 1) 도협월보 표지도안변경에 관한 일
 2) 도협월보 편집계획에 관한 일
 3) 기타
 참석자 : 위원장 최성진
 위원 양태진 이기정 이용남 최창균

<의결사항>

1. 1974년 1월 22일 도협월보 표지를 사무국에서 준비한 몇가지 도안중 한가지를 채택(도안별첨)하여 변경한다.
 2. 도협월보 2월호 특집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장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안한다.

제6회 한국도서관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 1974년 2월 14일
 장소 : 사무국
 안건 : 1) 제6회 한국도서관상 심사
 2) 기타
 참석자 : 위원장 김두홍
 위원 서장석 박희영 장일세 박대권

<회의내용>

성원보고 : 위원 8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한국도서관상 표창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서 접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사업부장) : 유인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1) 추천의뢰공문발송 : 570개처 (단체회원, 지구협의회 및 부회, 도서관학과)

2) 추천서 접수현황
 가. 공적상 : 17명(단체 2, 개인 15)

나. 연구상 : 1명
 다. 근속상 : 2명

의장(김두홍) : 심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영(이사) : 먼저 사무국에서 정리한 추천자의 공격내용을 검토하여 대체적인 것을 파악한 후 표창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다시 위원각자가 후보자의 공격내용과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런지요.

장일세(전문위원장) : 동의합니다
 의장(김두홍) : 다른 의견은 없으실지요.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 그점 먼저 사무국에서 각 후보자의 공격내용과 기타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한성택(사업부장) : 유인물에 의하여 단체공적상후보자 2, 개인 15, 연구상 1, 근속상 2명에 대한 설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와 공격내용 기타 확인된 관계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낭독 보고하다.

의장(김두홍) : 다음으로 심사기준을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권(사무국장) : 심사기준은 상별로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표창규정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시행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심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 먼저 공적상 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장석(학교도서관부회장) : 심사기준은 규정에 명시된대로 한국도서관사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내용을 어떤 기준에 두어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말은 바 업무에 충실함은 기본요건이고, 그로 인하여 타 도서관에 영향을 주어 도서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현저히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공적과, 도서관사업발전에 솔선수범한 공적으로 타에 영향을 주어 도서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현저히 나타난 공적을 본상의 수상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장일세(전문위원장) : 제 의견으로서 역사가 오랜 도서관이 그간 자체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와 타 도서관에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 이것을 현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경우 물론 현저한 공적임에는 틀림 없으나 본상 수상취지가 공격을 찬양하고 금후의 도서관사업발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욕적으로 도서관발전에 적극 노력한 개인이나 새로운 도서관의 공격을 높이 평가하여 새로운 일꾼을 발굴 찬양하고 의욕을 고취시켜 앞으로 더욱 도서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김두홍) : 서장석위원과 장일세위원의 의견이 전체 도서관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치하나 다만 장위원은 새로운 일꾼을 수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서위원의 견을 보다 구체화시킨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박희영(이사) : 두분 의견에 찬동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우선 자기 자신의 업무나 운영에 충실함으로써 비로소 타에 모범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미에서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체운영 또는 업무를 성실히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고 이것이 전체도서관에 직접간접으로 미친 영향이 커서 도서관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가져온 공적을 심사기준으로 하면 어떻런지요.

의장(김두홍) : 다른 의견이 없으실지요.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 그러면 단체공적상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각 위원이 추천서류를 검토하다—

의장(김두홍) :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권(사무국장) : 단체로서 홍익대학도서관과 경기고등학교도서관이 추천되었는데 경기고등학교도서관이나 홍익대학도서관이 모두 타에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단체공적상에 경기고등학교도서관을 수상할 것을 의결하다—

의장(김두홍) : 단체공적상에 경기고등학교도서관을 수상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공적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공

적상 후보자 추천은 15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박희영(이사) : 개인공적상을 검토하기 전에 추천되지 않은 도서관계 인사중에 수상자격이 충분히 있는 후보자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능한대로 많은 후보자를 놓고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천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적이 있는 다른 후보자가 있다면 선정하여 전문위원장의 추천으로 오늘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 끝에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 그러면 회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무국에서나 위원들께서 후보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영(이사) : 제가 한사람 추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윤병태씨입니다. 그분은 도서관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도서관발전에 노력을 하여 많은 공적을 쌓아온 줄 알고 있으며 소속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추천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사양하여 추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기관에서 작성해놓은 공적조서를 입수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김두홍) : 박위원장께서 윤병태씨를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읍니다. 전문위원장인 장일세위원께서는 이를 접수하여 추천할런지요.

장일세(전문위원장) : 박위원이 추천의뢰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김두홍) : 다른 추천의뢰 대상자는 더 없는지요? 없으면 1명이 더 추가되어 16명의 후보자가 되었읍니다.

—장시간 심사 끝에 서경모, 김정욱, 윤병태 등 몇 사람을 최종후보자라고 하고 또다시 장시간 심사 끝에 개인공적상수상자로 윤병태씨를 선정하여 의결하고 동시에 전남정미소대표 이기우씨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할 것을 회장에게 추천의뢰함을 의결하다—

의장(김두홍) : 다음으로 연구상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연구상부문은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의장(김두홍) : 다음으로 근속상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상은 추천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수상자로 결정되므로 추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천서류를 위원 각자가 검토하다—

의장(김두홍) : 위원 각자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한사람씩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송산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 이의없음을 동의하여 20년 근속상 수상자로 의결하다—

의장(김두홍) : 다음 신승우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장일세(전문위원장) : 이분은 195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주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학력사항은 1956년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어느 기간동안은 고용원으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점이 있습니다.

박희영(이사) : 그 점은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보면 도서관업무에 종사한 것을 근무연한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떠한 직책에 있었던 기간에 도서관에 근무하였다면 도서관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런지요.

서장석(학교도서관부회장) : 도서관에 근무하였다면 도서관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김두홍) :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나 현규정상상의 문제이고 결격사유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여 20년 근속상 수상자로 의결하다—

의장(김두홍) : 제6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로서 단체공적상 1개관, 개인 1명, 근속상 20년상에 2명이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차기 이사회에 오늘 심사결과가 자동적으로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상자결정은 끝이고 한가지 의견을 기타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 근속상에 대하여 앞으로 20년이상 도서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도서관의 역사가 얼마 안되어 몇사람 안되지만 수년

이 지나면 거의가 20년 근속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속상에 대한 근속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1세대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함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년 이상 도서관에 근무하였다고 하면 평생을 도서관에 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근속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속연한의 연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이사회에 건의하여 보완토록함이 어떨할런지요.

—장시간 논의 끝에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본위원회에서 근속연한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음을 다음 이사회회의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만 끝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 1974년 2월 22일

장소 : 협회사무국

안건 : 1) 사무국 보고

2) 제6회 한국도서관상 심사 결과 보고

3) 1973년도 사업실적 보고

4) 1973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5) 197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6) 기타

참석자 : 전무이사 : 김두홍

이사 : 김세익, 김윤태, 김중문, 박치욱, 박희영, 손성우,

임종순, 서장석(위임)

감사 : 김해룡, 윤구호

전문위원장 : 장일세

<회의내용>

성원보고 : 이사 및 감사 14명중 이사 8명 참석, 위임 1명으로 성원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사무국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유인물에 의하여 제회의와 기타 사항에 대한 사무국보고를 상세히 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사무국 보고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지요.

김세익(이사) : 도서관학 교과과

정에 대한 문제를 교육조사분위에서 논의되어 시간작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각대학의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는 각대학의 문제이지 이를 외부에서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조사분위에서 어떻게 연구하도록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일세(전문위원장) : 교육조사분위에서 연구한다고 한 것은 다만 비교연구점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연구된 결과를 각 대학의 교과 과정에 반영토록한다든지 또는 강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교육과정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연구하여 발표함으로써 도서관학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무국보고는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음은 제6회 한국도서관상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제6회 한국도서관상 심사결과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단체공적상에 경기고등학교 도서관, 개인공적상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윤병택씨 근속상 20년상에 안송산씨(이화여자고등학교) 신승우씨(청주대학도서관)를 도서관상 수상후보자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고 각자에 대한 공적조서 등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다. 아울러 도서관상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근속상부문에 대한 근속연한은 30년으로 연장토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보고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현행 규정에는 20년 부터 근속상을 주고 매 5년 마다 다시 주도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1세대 즉 30년부터 근속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손성우(이사) :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속기간을 도서관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하였는데 종사한 도서관업무에 대하여 일반관리업무도 도서관업무로 하느냐, 다시 말해서 도서관에서 서무나 고용원으로 근무한 것도 인정하느냐 하는데 대하여 재고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러한 문제도 연구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박계홍(이사) : 저도 동감입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도서관업무로 인정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두분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도서관업무라는 것은 반드시 사서업무에 종사한 것만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서업무에 성실치 못하게 종사한 사람보다는 고용원이지만 도서관에서 열심히 근무하였다면 더욱 도서관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근무하였다고 하면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이는 도서관업무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격증소지 또는 사서업무 등의 요건을 강조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문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익(이사) : 이번 제6회 도서관상심사결과에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심사되었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중문(이사)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정상 어떤 모순이 있는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건의한 근속상부문의 근속연한 연장에 관한 건의와 기타 필요한 내용을 개정토록 하는 문제를 동의합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6회 한국도서관상심사결과는 이사회에서 동의하도록 하고 근속상부문의 근속연한 연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6회 한국도서관상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음으로 도서관상규정 개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태(이사) :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행정분위에 개정안 작성을 위임하고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치욱(이사) : 김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필요하다면 시행세칙안을 작성하도록 행정분위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청 삼청으로 전원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3년도 사업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유인물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보고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사업보고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없으신지요.

—전원 이의없이 동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음 안건으로 1973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유인물에 의하여 1973년도 결산보고를 하다.

윤구호(감사) : 유인물에 의하여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상세히 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중문(이사) : 회비정수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부토록 할 것이며, 출판물대금 미납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히 징수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고 회비정수부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본회 단체회비는 72년도부터 회원급별기준과 회비액을 재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회비조정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비미납내역을 보면 60%가 학교도서관인데 이는 회원급별 구분상의 문제에 기인되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원급별이 증진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2,000원정도의 부담이 약 7.5배정도나 이상된 13,000원정도를 부담하게 된 결과로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비 재원연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인상된 회비를 납부하기에 힘이 벅찬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회비정수가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비 재원연출방안이 해결되어야 하

고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장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음으로서 회비납부실적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에서도 학교도서관부와 함께 학교도서관 발전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서관 전체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출판물 대금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각 도서관에 따라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회에서 출판물을 판매할 때 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밟지 않고 각도서관에 책을 발송하여 대금을 납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에서는 협회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을 청산해 주는가 하면 어떤 도서관에서는 자체의 예산의 어려움도 있는데 주문하지도 않는 출판물을 보내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출판물을 보낼 때 관제정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집행된 금액을 유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미수될 출판물 대금에 대하여서는 적극 독려 또는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이사) : 사무국장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수금 정수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협회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정희(서장석이사 대리 참석) : 학교도서관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당면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미수금 정수에 대하여서는 사무국에서 더욱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운영의 묘를 거두어 성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박치목(이사) :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삼청으로 전원 의의없이 동의 통과시키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음안건으로 7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유인된 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본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협회의 재정사정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게된데다가 4/4분기 보조금을 반납하게되어 부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게 된 점등을 감안하여 지난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인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협회의 재정의 어려운 실정은 이사회에서 특히 걱정해야 할 문제로서 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입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의장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수차 검토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안입니다. 예년에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협회가 부채를 지게되고 국고보조금도 없게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통제책발간사업 등을 경제적으로하여 기본조사만을 해놓고 책자발행을 생략한다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최소의 규모로 하고 그대신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 협회재정 결함을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는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논의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이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해 주십시오.

장일세(전문위원장) : 이제까지 장시간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대체로 수익성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입은 미납금 정수의 절저와 출판물재고를 숙히 처

리하여 보충하고자하는데 집약된 것 같습니다.

손성우(이사) : 비생산적인 사업을 줄여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재편성 하도록 하되 이를 이미 구성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수익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신지요.

박치목(이사) : 재청합니다.

김종문(이사) : 삼청합니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른 의견없으시고 재청 삼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안건은 동의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 정부의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협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교환하고 본협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연구하여 적극 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다—

김세익(이사) : 본협회 추천도서 제도 등을 마련하여 출판계와 보다 긴밀한 협조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협회의 대외적인 권위를 높이도록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희영(이사) : 저도 김이사의 의견에 적극 찬동합니다. 이 추천도서 제도문제에 대하여서는 몇몇 이사들 사이에 사적으로 이야기될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연구과제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다—

의장(김두홍 전무이사)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이사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 하셨습니다.

● 圖書館發展에 대한 提案을 바랍니다.

本協會는 本會運營과 圖書館發展을 위한 여러 가지 意見이나 提案을 바라고 있습니다. 提出된 意見이나 提案은 道협월보에 掲載하여 널리 알림은 물론 이를 研究하여 積極 反映하게 될 것입니다.

● 事務局日誌

- ▲2月 18, 19日 自體 監査 實施
- ▲2月 19日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소위원회 개최
- ▲2月 22日 第1次 理事會 開催
- ▲2月 26日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소위원회 개최
- ▲2月 28日 大邱市立圖書館 開館式 참석 (局長)
- ▲3月 4日 북괴규탄 성명서 발표
- ▲3月 8日 第20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 開催
於：韓國科學院 강당

● 신 입 회 원

<개인회원>

- 정 영 자 (서울 중로구 청운동 53의 35호)
- 채 회 준 (서울 도봉구 수유동 448-1)
- 고 흥 석 (한국사서교육원)
- 서 경 모 (공주교육대학 도서관)
- 김 남 순 (강원대학 도서관)

● 회원인사소식

▲영남대학교 도서관장

現：이 중 후 교수
前：윤 창 균 교수

▲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現：李 珪 範 교수
前：최 덕 주 교수

▲강원도교육연구원 도서관장

現：朴 性 玉

▲홍천공공도서관장

現：朴 大 遠
前：박 성 욱

▲朴 昇 夏 (충남지구협의회회장)

現：한밭여자중학교장
前：대전여자중학교장

▲權 漢 遠

現：예산중앙고등학교장
前：대전고등학교 교감

▲禹 斗 鉉

現：대구동중학교
前：경혜여자중학교

▲權 鉉 屋

現：김해대사국민학교
前：김해이북국민학교

● 배부의뢰도서

도서관학보(第2號)	(배부처지정)	100부
교통안전(1月)	(")	150부
不可侵協定을 拒否하는 北韓의 속셈(문공부)		300부
總和維新의 施政指標(문공부)		300부
今日の 日本		130부
論文集(東國大) 第11輯		94부
東洋學(檀國大) 第3輯		95부
수학 및 통계연구(檀國大) 第5輯		95부
西海事態의 真相(문공부)		300부
論文集(漢陽大) 第7輯		101부

● 신착교환도서

出版文化(1月號)	大韓出版文化協會
Special Libraries(Vol.64, No.11)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圖書館雜誌(2月號)	日本圖書館協會
법인 및 사회단체 일람표	文 教 部
圖書館 大道(第3號)	國學院大學 栃木學園(日本)
The Quarterly Journal (73.10)	The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Libraries(74.1)	A. L. A.
문헌정보(제3권 제1호)	國立中央圖書館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73.12)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인들이 本會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면서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 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1.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施設을 가진 團體

2.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申請書를 記載 捺印하여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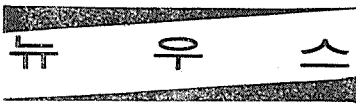
3. 會 費

個人會費：年 600원

團體會費：A급 年 25,000원 B급 年 20,000원

C급 年 13,000원 D급 年 7,000원

E급 年 5,000원 F급 年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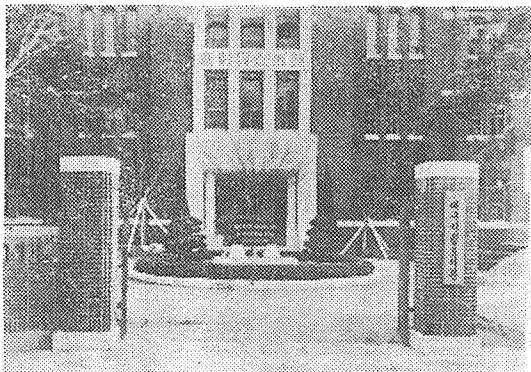


大邱市立圖書館 移轉

지난 3월 1일 大邱市立圖書館의 移轉開館式이 慶北道知事를 비롯하여 관계 人事와 道內 有志가 多數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大邱市立圖書館은 1919年 8月 1日 慶北道廳構內의 別館에서 開館한 이래 現 大邱市中區廳舍를 圖書館建物로 新築하여 移轉하였으나 火災로 因하여 無期休館한 일도 있었으며 市教育廳舍와 建物를 共同으로 使用하는 등 마땅한 建物없이 여러차례 移轉하여오다가 大統領閣下의 特別한 배려로 이번엔 舊大邱地方法院 廳舍를 買入하여 1973年 11월부터 1974年 2월까지 4개월간 補修工事を 完工시켜 移轉하게 됨으로서 大邱市民들의 오랜 宿願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본 도서관 廳舍는 垆地 3,003坪 建坪 2,233.5坪으로서 벽돌조 3층 1동과 철근콘크리트 3층 1동을 비롯하여 附屬 건물 5동으로 되어있으며 1,700餘席의 閱覽席과 視聽覺室, 향토자료실, 전시실 등의 內部施設을 갖추게 됨으로서 크게 擴張되었다. 따라서 全國의 公共圖書館中 서울시 立南山도서관 다음으로 큰 建物를 가지게 되었으며 閱覽席 등의 內部施設의 規模는 제일 큰 公共圖書館으로 發展되었다.

이 도서관은 建物과 施設의 擴張에 따라 名實相符한 圖書館奉仕를 다하기 위하여 圖書館運營의 效率化에 努力을 傾注할 計劃이라고 하는 바, 1974年度의 重點事業으로서 향토자료실 및 시청각실과 전시실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자료확충을 위하여 市民 1人當 0.1卷의 圖書를 最少의 基本藏書量으로한 12萬卷 藏書擴充을 目標로 年間 7萬 5千卷씩 購入 또는 獻書運動으로 1977



—대구시립도서관 건물일부—

年度까지 完成시키는 등 特殊施設의 整備와 運營의 合理化를 圖謀하는 한편 移動文庫運營을 強化하기 위한 各種事業을 計劃하고 있다고 한다.

보은군 도서관 新設

충청북도 보은군도서관이 新設되었다. 이 도서관은 보은군교육청에서 設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建坪 114평, 열람석 54석, 장서 1,200여권을 가지고 오는 3月末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는 바 건축비 9,825,000원, 내부시설비 1,625,000원 도합 11,625,000원의 設치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水産協同組合 도서관 新設

수산협동조합중앙회는 소속직원들을 위하여 도서관을 新設되었다. 본 도서관은 40여평으로서 장서 3천여권을 소장하고 전문직사서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도서관봉사를 도모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도서관에서

蘇·中共 등에 자료교환 提議

국회도서관은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共產國家 11개국 的 15개 도서관에 資料를 交換하자고 提議했다.

국회도서관은 작년 11월 이들 共產國家들에게 새로 이 자료교환을 제의하는 공문과 함께 문공부 발행 「韓國의 過去와 現在」 「韓國의 古代藝術」 등 英文책자를 發送한 바 아직 回信을 보내온 나라는 없으나 回信이 있을 것으로 期待되며 時日을 좀 더 기다려본 후 자료교환을 다시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도서관은 작년 12월 20일 국회도서관법 的 개정으로 종전의 법제자료실을 海外資料局으로 개편 蘇聯課, 中華課 등을 新設하여 海外資料交換업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엔 국회도서관이 자료교환을 제의한 共產國家는 蘇聯을 비롯하여 中共, 東獨, 체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蒙古 등 11개국 이다.

嚴大燮 初代事務局長

의술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의술회는 제3회 의술상 수상자로 실천부문에 마을문고본부 사무총장 嚴大燮씨(本會初代事務局長)를 선정했다고 發表했다.

의술상은 의술 최현배 선생의 뜻을 남겨 널리 퍼내기 위하여 設정한 상으로서 매년 文化부문과 실천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에게 수여된다. 그런데 文化부문에는 公炳禹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3일 세종대왕기념관 강당에서

배풀어지며 상폐 및 부상 100만원이 수여된다고 한다.
嚴大變씨는 울산공공도서관을 설립한 바 있으며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동안 본협회 初代사무국장을 歷任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본인이 창립한 사단법인 마을문고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서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準사서자격 취득강습회 開講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제12회 준사서자격취득강습회가 지난 3월 12일 남산시립도서관에서 개강되었다. 이 강습회는 일선 도서관에서 자격증없이 근무하는 현직 도서관직원의 자질향상과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진로를 개척해주고자 매년 3, 4월頃に 50일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번의 제12회 강습회는 당초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수강희망자가 많아 (168명) 부득이 수강인원을 70명으로 재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例年 수강자 선발은 공공도서관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서류전형에 의하여 해당인원을 선발하였으나 금년에는 수강희망자가 급격히 증가되어 소양과목(도서관학개론, 國史)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에 따라 수강자를 선발하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시험을 통하여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부회총회 개최

1974년도 공공도서관부회 총회가 지난 3월 7일 남산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73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197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부회의 금년도 사업으로서 여름독서학교 운영계획과 연구발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文公部에서 不良圖書目錄 配布

文化公報部는 最近 不法不良圖書目錄을 各書店과 出版界에 配布, 비치하게하고 이 目錄에 收錄된 圖書

를 판매금지토록 하였다. 이 目錄에는 180種의 國內圖書와 44種의 外國圖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國內圖書는 69년부터 73년까지 5年間 圖書雜誌倫理委員會가 제재를 의의한 것이고 外國圖書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판매금지된 것이라고 한다.

孫成祐 理事

中華民國 圖書館界 視察

本會 孫成祐理事는 지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中華民國의 圖書館界를 視察하고 歸國하였다.

孫理事는 이번 中華民國圖書館界 訪問中 國立대만대학도서관, 文化學院도서관, 古宮博物館,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各地方의 여러 圖書館을 訪問 視察하였다고 한다.

서울 醫大圖書館

朴 鍾根씨 귀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서관 朴鍾根 司書는, 극동지역 의료원조기관(C.M.B)의 초청으로 1973년 8월 30일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6개월간 日本 慶應大學醫學情報센터에서 研修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各市·道敎委會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서 시달

문교부는 74학년도에,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각 시·도교위에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서와 운영지침서를 시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토록 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1교 1개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각 시·도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장학사를, 각급학교에는 사서 및 사서교사를 지명하여 학교도서관 교육임을 맡게하고 학교도서관 열람좌석 및 장서는 기준량에 맞도록 할 것이며 운영비는 자율적경비중에서 최대한의 도서비를 염출토록하는 등 각 시·도교위는 학교도서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도별로 학교도서관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1974년 3월 1일 인쇄

1974년 3월 5일 발행

<월간> 도 협 월 보

제 15 권 제 3 호

발행인 이 선근
편집인 박대권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6 (국립중앙도서관 구내)

(우편번호 100) 전 화 (22) 4864·5613

진 체 서 울 3753

사 서 함 서울중앙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9

인 체 인 삼성인쇄주식회사